

## 판문점이 길이 전하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념원

해마다 11월이면 사람들은 뜨거운 추억의 마음을 판문점에 새워준다.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에 새기신 애국헌신의 발자취와 더불어 력사의 그날은 겨레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금문자로 새겨져있고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념원은 전체 조선민족을 통일성업실현의 한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 빨찌산의 아들, 최전방에 나가시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에는 류달리 흰 안개가 서리렸다.  
세상사람들속에 《흰 안개 전설》로 전하여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바로 이날과 더불어 새겨진것이다. 당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어 있었다.  
평화나, 전쟁이나를 논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조선반도 남북과 그 주변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을 기습타격하는 실전으로 넘어갈수 있는 대규모전쟁연습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었다.  
미국을 피우려 한 제국주의권합세력은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며 압살의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고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홍수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극한점에 달한 령정이 열전으로 번져지는것은 거의나 피할수 없는 시간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때 민족자주, 평화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렬의 협매하고 날카로운 량국이 서로 직접 대치되고있는 판문점을 찾으신것이다.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판문점초병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주체 85(1996)년 11월]

것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인종의 머리에 드리웠던 전 통일의 밝은 해살을 뿌려주실도하였다. 담대한 배짱과 담력으로 민 쟁의 검은구름을 밀어내시고

### 분렬의 상징을 통일의 상징으로

기나긴 세월 분렬의 상징으로 되어온 판문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통일의 상징으로 겨레의 마음속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여주시었다.  
판문점시찰의 그날 장군님께서 청신한 대기속에서 숭엄한 자세를 드러내고있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말에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깊은 감회속에 친필비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친필비준하신 력사적문건이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었다고,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분명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문건에 친필을 남기시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수령님의 령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날 장군님께서 판문각 3층로대에도 오르시었다.  
불과 수십m앞의 남쪽땅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여기서 서울까지는 불과 40km밖에 안된다고, 평양까지 가는 거리의 4분의 1도 못된다시며 조국통일이 안된다보니 지금은 여기서 부득이 멈춰서게 된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그의 말씀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다시 잇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아가는

해마다 11월이 오면 우리 민족은 지나온 력사와 더불어 민족의 힘, 국력에 대하여 되새겨보군 한다.

### 11월이 말해주는 력사의 진리

1905년 11월 17일. 이날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치욕의 한페이지 기록되어있다.  
당시 일제는 수많은 침략무력과 대포를 끌고와 황궁을 겹겹이 포위하고 위협하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나라를 내놓을것을 강박 하였으며 망국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

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힘없는 민족이 당해야 했던 치욕의 운명이였다.  
당시 모략한 일제는 군함과 대포를 앞세우고 달려들었지만 우리에게는 화승총마저 변변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침략자들에게 맞서 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나라

를 빼앗겼다. 그때로부터 40여년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면서 당한 불행과 재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한세기가 지난 오늘날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힘을 갖추게 되었으니 지금도 사람들은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무진한 잠재력을 과시하는 성과물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반항공미사일시험발사 등 무장장비개발소식들과 조선로동당 창건 76돐을 맞으며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의 전람회장에 집결되었던 최근 5년간 개발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은 강력한 조선의 국방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친명신사와 같이 공화국무력의 상대는 그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니며 전쟁 그자체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공화국이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는 위력한 자위의 억제력이다.  
이 위대한 힘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을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이다.  
11월은 말해준다. 탁월한 수령을 모실 때 강대한 힘을 지닐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날수 있다는것을.



성황리에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을 눈부신 발전면모와 무궁

본사기자 김영진

### 수령님의 통일의지와 신념이 어린 친필비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대표부에 도착하시어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부터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래도록 곁을 멈추시고 숙연히 서계시었다.  
친필비에는 수령님께서 생애를 마치시기 하루 전날에 친히 조국통일판계문건에 마지막으로 쓰신 존함과 날자가 수령님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친필비말에 이렇게 서니 생각되는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기울으신 그 많은 낮과 밤을 감회깊이 되새겨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실험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날에도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분명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을 위

한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시고 순직하시었다고,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력사적인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요한 통일의지와 신념이 함축되어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수령님의 확신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령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

### 새벽안개 내린던 그날에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 앞에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각에 둘러시었다.  
통일각의 내부를 일일이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그 건설유래와 거기에 깃들여있는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감회깊이 들려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 진짜 몇쟁이집

장군님께서 《통일각》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통일각은 진짜 몇쟁이집이라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참으로 통일각은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체현하고있는 뜻깊은 집으로, 누가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고 누가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을 직접 목격하고 만천하에 예치는 력사의 증거자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 진행

### 조국소식

얼마전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적우주개발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주개발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최신과학기술성공과를 널리 보급일반화하여 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동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교육기관들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인공지구위성분과, 우주제 및 요소분과, 우주관측 및 기초과학분과, 응용기술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 단위들이 제출한 190여건의 논문들을 심사평가하였다.  
위성과 그 부분품들의 제작 및 시험기술, 위성항법과 궤도 및 자세조종기술, 합성개구레이더 및 위성용활영기의 개발기술과 위성통신, 지상관측기술, 각종 우주용재료개발

기술 등 인공지구위성의 개발과 조종, 관측 및 통신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한 논문들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적극화되는데 부응하여 공화국의 우주개발계획을 확신성있게 추진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엔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 개원협화원 구성담공장 준공



### 평안북도에서



### 개원협화원 국민통천제지공장 준공

